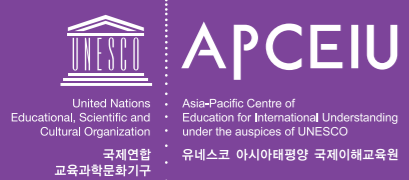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 학교 만들기 가이드

전학교적 접근으로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학교 만들기 가이드

전학교적 접근으로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

발행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문의 mnd@unescoapceiu.org

발행일 2018년 12월

기획·편집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실

집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실
경기 호원초등학교 서화진
강원 신림초등학교 최일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이찬승

감수 동탄중앙이음터 조난심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선중복
충남대학교 BK21 세계시민교육연구소 박혜경

인쇄·제작 디자인퍼플(designpurple.co.kr)

© APCEIU 2018
ISBN 979-11-87819-12-7

본 출판물에서 표현된 아이디어 및 견해는 개별 저자의 것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도
대표하지도 않음을 밝힙니다.

세계시민교육 가이드

전학교적 접근으로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

여는 글

여러분에게 '학교'란 어떤 곳인가요?

학교라고 하면 저는 교실의 풍경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감싸고 있는 학교 담장과 교문, 그 안에 자리잡은 학교 건물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책을 발간하면서, 학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범위는 교실이라는 공간 혹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더불어 살기 위한 배움을 얻는 곳으로서 학교의 범위는 울타리를 넘어 확장됩니다. 다시 말해 이 배움터는 학교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포괄합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세계시민교육을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학교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학교 차원의 원동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분절적인 실천이 많고, 체계적인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시민교육 교안이나 수업자료 등은 현장에 꾸준히 보급되어 왔지만, 학교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세계시민교육 학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세계시민교육이 교실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세계시민교육 학교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교 생활 전반에 세계시민교육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학교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여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주요 독자는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해 중요한 원동력이 될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실에서 해오던 세계시민교육을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사, 세계시민교육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장이 되는 가정(학부모)과 지역사회(교육청, 지자체, NGO 등)까지 아우릅니다. 세계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세계시민교육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입문자에게도 유용한 가이드를 제시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집필진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깊은 통찰로 학교의 미래를 진단하며 세계시민교육이 발현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대한 글을 써주신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찬승 대표, 학생들이 마음껏 꿈꾸며 세계시민으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진지한 고민을 나눠주신 강원 신림초등학교의 최일호 교장, 세계시민교육을 현장에서 앞장서 실천하며 마주한 시행착오와 보람을 솔직하게 공유해주신 경기 호원초등학교 서화진 교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 책의 집필과 편집을 도맡아 수고가 많았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연구개발실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 책이 세계시민교육을 전학교적 접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학교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세계와 공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정우탁

contents

PART 1.

함께 그려보는 세계시민교육 학교의 비전

PART 2.

학교에 부는 변화의 바람

10	step. 1	세계시민교육 학교, 왜 필요한가요? <small>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small>
16	step. 2	세계시민교육 학교, 누가 만들 수 있나요? <small>유네스코 국제교육국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small>
20	step. 3	세계시민교육 학교,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small>유네스코 국제교육국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small>
26	step. 4	세계시민교육 학교, 무엇을 하면 되나요? <small>유네스코 국제교육국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small>
34	story. 1	아이들을 위한 변화를 만드는 교사 <small>서화진 (경기 호원초등학교 교사)</small>
46	story. 2	학교 변화의 디자이너, 교장 <small>최일호 (강원 신림초등학교 교장)</small>
56	story. 3	다시 생각하는 학교의 역할 <small>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small>

함께 그려보는

세계시민교육
학교의

비전

어느 학교나 세계시민교육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학교가 된다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 이해, 행동의 실천이
교실에서 학교로 확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시민교육 학교, 왜 필요한가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1.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시민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들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국경의 문턱이 낮아진 오늘, 한 국가의 문제는 비단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국제사회는 더욱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게 되었고 그 방법의 하나로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2030년까지 지구촌이 함께 달성해야 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부목표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등의 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점점 더 전 지구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가치관과 태도 및 의 사소통 기술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교육은 평화, 인권, 평등,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발전을 뒷받침하며, 전 지구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담론의 변화로 세계시민교육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시민교육이 부상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세계시민교육은 우리 학교에도 필요한 걸까요?

다음의 1분 체크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알아봅시다.

5-6 개

이미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적극 실천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주변에 있는 세계시민교육 입문자에게 본인의 사례를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3-4 개

세계시민교육에 발을 담그고 조금씩 실천을 하고 계시군요. 파트1에 있는 실천 전략수립을 통해 더욱 견고한 세계시민교육 실천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1-2 개

이제 막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하셨군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파트2를 추천합니다.

0 개

세계시민교육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많으시군요. 이 책을 통해 그런 의문을 하나씩 풀어보면 어떨까요?



Checklist

-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가치인 평화, 인권,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발전에 공감하며 우리 학교 내에 이런 가치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
- 교육의 역할은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감하며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교육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1세기 학습환경과 학습자의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2015 교육과정 총론이 추구하는 인간상, 즉 홍익인간 정신에 기초한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에 공감한다.
-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와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이라는 공동의 정체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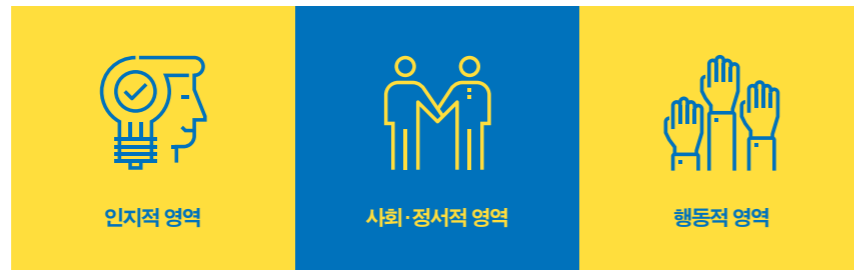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2015년 출판한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며 이미 축적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주는 교수방법을 지칭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다른 교과목과 비교해 학습자와 학습환경에 맞게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더 많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7차 교육과정부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발전해 온 국제이해교육, 지속발전가능교육,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 여러 연관 교육분야가 있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한 교사들의 역량과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복', '인성', '창의·융합', '다양성', '민주주의', '체험학습', '자유학기제' 등의 화두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5).

이러한 움직임은 지구촌 공동의 목표로 제시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원동력과 기회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적절한 원동력과 기회를 만나게 된다면 세계시민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세계시민교육이 담고 있는 주제들

그렇다면 세계시민교육은 무엇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기본 학습영역과 학습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적 영역

지역사회·국가·범 지역·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사회·정서적 영역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를 함양한다.

행동적 영역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5)

이 세 가지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영역은 서로 별개의 학습과정이 아니라 학습과정에서 상호 연계하고 통합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성과가 실현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학습자의 특성으로는, 우리가 세계인으로서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을 지향하는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우리가 서로 달라도 같은 존재이며 더불어 사는 세계임을 지향하는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를 고민하는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가 있습니다. 각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3 암묵적 가정(underlying assumptions)과 권력의 역학관계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 9 참여하고 실천하기

제시된 9개의 학습주제는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 특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틀입니다. 위의 학습주제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개념화된 것으로 다소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층적·다면적인 교육현장의 우수사례와 시행착오를 참고하며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세계시민교육을 맥락화하는 교수학습법이 필요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의 교수학습법은 가치와 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발전, 인권, 문화 다양성, 포용성, 사회·경제적 정의, 양성평등, 지속가능성과 같은 삶의 가치에 기반하여 인류의 안녕을 존중하는 태도함양을 지향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차별적 특징인 변혁적 교수학습법(transformative pedagogy)은 실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학습을 장려합니다. 나아가 참여를 통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

내 세계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학습환경과 학습과정의 한 부분인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의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교실 안팎에서 교육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변혁적 교수학습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또는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차원의 습관적 행동을 재교육하는 과정인 동시에 공동체 차원에서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혁적 교수학습법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며, 질문에 기반을 둔 참여적·창조적·경험적 공동체 활동과 민주적 학습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4).

3.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궁금증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일삼달삼 궁금했던 내용을 모아서 QnA로 알아봅시다.

Q. '글로벌' 이슈 또는 '국제교류'에 대해 가르치면 되나요?

A. 세계시민교육은 다층적이며 다중적인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조합니다. 즉,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세계'는 개인이 속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및 전 세계 차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과 '국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 속한 공동체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전 인류의 연대를 강화하는 더불어 살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수업이나 국제교류 활동이 세계시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잠재된 타자화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문구처럼 우리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Q. 사회, 윤리(도덕) 교과를 제외하면 현행 교육과정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A.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주제들이 다른 교과에 비해 사회, 윤리(도덕) 교과에서 다루기 용이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주제와 교수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시민교육은 특정 교과를 가리지 않습니다. 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창의 및 실천 기술과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수업이라면 세계시민교육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과 세계시민교육이 하나의 단독 교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각 교과 내용과 진도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교과 외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통해서도,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거나 가정에서의 실천 등을 통해서도 세계시민교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를 향한 주변의 독려가 필요합니다.

Q.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인가요?

A. 이 모든 교육이 지닌 주요 목표는 '학습자가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나 연계 방식이 달라졌을 뿐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개념은 '더불어 살기 위한 교육'으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세계시민교육을 위 교육과 상충하는 새로운 또 하나의 교육으로 여기기보다는 모든 교육의 주요 개념을 포괄하며 맥을 같이 하는 다면적 교육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Q. 유네스코학교, 세계시민교육 연구학교처럼 특화된 학교만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나요?

A. 전학교적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유네스코학교나 세계시민교육 연구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 교사, 학생의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참여와 의지 없이는 유네스코학교나 세계시민교육 연구학교도 제대로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 차원의 운영이 어렵다면 교실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본 뒤 그 범위를 차차 확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Q.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전학교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A. 콜롬비아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는 가정 폭력이에요. 세계시민교육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학교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와 논의의 장을 조성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공동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노력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실현되는 핵심 공간이어야 해요." 주제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학생들의 절박한 이야기가 비단 콜롬비아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학생들의 진지한 요구에 대해 이제는 학교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학교의 개념과 역할이 어떻게 변혁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책은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전학교적 접근'을 중심에 두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학교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뤄집니다.

참고문헌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2014).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2017). 세계시민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가이드.

세계시민교육 학교, 누가 만들 수 있나요?

유네스코 국제교육국*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Step 2, 3, 4는 유네스코 국제교육국이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함께 2018년에 발간한 'Training Tools for Curriculum Development: A Resource Pack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Module 6. Whole School Approach'를 번역 및 편집한 것입니다.

번역자: 이인영 (서울대학교)

1.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전학교적 접근이란?

어느 학교나 세계시민교육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학교가 된다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 이해, 행동의 실천이 교실에서 학교로 확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확장된 실천의 장(場)에 학교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이 포함될 때 세계시민교육은 더욱 효과적이게 됩니다. 세계시민교육 학교를 만드는 이러한 총체적인 방법을 '전학교적 접근(whole-school approaches)'이라고 합니다.

학교 환경에서 전학교적 접근이란 '학생의 학습과 행동, 복지를 향상하며, 이를 발전시키려는 학교 공동체의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IBE-UNESCO, 2013, p. 61). 세계시민교육의 전학교적 접근은 학습자의 수요를 다루는 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및 학교라는 사회 전체로 범위를 확장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교 및 학습기관이 학생, 교직원, 교사, 행정가, 부모, 지역사회 등 학교 전체 공동체를 포함할 때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제 연구들도 '학교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분절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을 넘어 전학교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Van Driel 외, 2016, p. 28)'며 전학교적 접근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전학교적 접근의 주요 참여자



세계시민교육의 전학교적 접근은 모든 유형과 수준의 교육체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교육과정, 수업안, 교수법 실천, 교실 내외에서의 활동, 학습 자료, 교사 연수 및 전문성 개발 등이 모두 전학교적 접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Oxfam, 2015; UNESCO, 2016). 세계시민교육의 전학교적 접근은 학교 교육 전반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단체, NGO, 기타 청소년, 건강, 사회서비스 단체 등 학교 복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학교적 접근은 각 학교의 고유한 상황과 교육 체제에 따라 정의되고 실천됩니다. 또한 학교 상황과 학습 수요에 맞추어 변화하고 계속 발전하며, 심의·계획·기록·구성됩니다. 1년과 같이 비교적 단기간의 실행계획을 통해서도 실시될 수 있으나, 이상적으로는 장기간 실행,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전학교적 접근은 모든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 파트너를 포함하며 학교생활 전반과 연계됩니다. 전학교적 접근의 목표는 '학교 안에서 모두가 능력, 장애, 언어, 문화적 환경,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연령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환영받음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MoE-Alberta, 2017). 전학교적 접근은 세계시민의식, 인권, 포용, 관용, 환경, 사회정의, 지속가능성, 건강을 포함한 여러 영역의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학교적 접근은 세계시민교육의 장점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의 주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학교적 접근은 학교 공동체가 지닌 세계시민교육 비전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참여 장벽을 제거하고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상적으로 전학교적 접근은 학습 환경 전반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수 활동과 학교 전체의 일상 및 활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전학교적 접근 주제는 학교 정신(비전, 미션, 철학)이나 스스로 규정한 세계시민성의 우선순위, 주제, 현안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학교장, 교사, 자원이 세계시민교육에 관여하는 수준은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형성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청(소)년 주도 활동, 지역사회 참여, NGO와의 협력,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 국제교류, 세계시민교육 봉사활동,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참여 등 학교 밖에서도 실천될 수 있습니다(UNESCO, 2015, p. 49).

* 유네스코 국제교육국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E): 제네바에 위치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1기관. 교육과정 연구, 교육과정 및 학습전략 개척을 위한 역량강화, 회원국의 교육사업 운영 방법 및 구조개선, 모범 사례 수집, 분석, 배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함.

2. 세계시민교육의 전학교적 접근 전략과 활동 계획 세우기

전학교적 접근법을 적용한 다양한 전략과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략과 관련 활동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해봅시다.

이 작업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학교 구성원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소그룹 활동으로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학교의 상황과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각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와 관련한 개인적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전학교적 접근을 이용한 세계시민교육 일반 전략 예시

<p>1</p> <p>각 전략에 지역-세계 관계를 포함시키며, 참여적인 학습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p>	<p>2</p> <p>전체 학교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적 가치와 주제 탐색을 적용한다.</p>	<p>3</p> <p>세계시민교육의 내용, 가치, 행동을 추가하여 특정 교과목을 개발한다.</p>
<p>4</p> <p>글로벌 인식을 높이는 학교 전체 활동을 장려한다.</p>	<p>5</p> <p>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한다.</p>	<p>6</p> <p>청(소)년 주도 활동과 학교 동아리를 활성화한다.</p>
<p>7</p> <p>학교 파트너십 및 학생 교류를 한다.</p>	<p>8</p> <p>NGO 파트너십을 맺는다.</p>	<p>9</p> <p>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 전문성을 개발한다.</p>

전학교적 접근을 이용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예시

- 주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 주제 : 평등과 사회정의
- 주제 : 아동 인권
- 주제 : 깨끗한 물
- 주제 : 다양성과 통합
- 시민교육 및 역사 학습에 세계시민교육 포함
- 언어 학습 및 문학에 세계시민교육 포함
- 환경 과학에 세계시민교육 포함
- 예술, 드라마, 사회, 문학, 글쓰기, 음악 또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이용하여 유엔 세계의 날 기념
- 세계시민교육 관련 지역사회단체, 시민사회, 노동조합, 현직 공무원과의 파트너십 구축
- 환경동아리, 사회정의 학교동아리, 옥스팜이나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NGO의 학생 지부 등 청소년주도집단 활동 장려
- 세계시민교육 주제, 이슈에 관한 인식 고양을 위한 후원 걷기·달리기
- 타 도시, 지역, 국가 거주 학생 간 지식과 경험의 직접·가상 교류 및 공유 활동
- 교직원을 위한 지속적 세계시민교육 연수 및 개발
- 교수자료 및 동료 학습을 위한 가상공간 활용
- 모의 유엔
- 세계시민교육 인식 향상을 돕는 NGO와의 협력

참고문헌

- IBE-UNESCO. 2013. IBE Glossary of Curriculum Terminology. Geneva, IBE-UNESCO. http://www.ibe.unesco.org/fileadmin/user_upload/Publications/IBE_GlossaryCurriculumTerminology2013_eng.pdf(Accessed 19 June 2018.)
- Ministry of Education of Alberta (MoE-Alberta). 2017. Whole-School Approach. Alberta, Canada. <https://education.alberta.ca/safe-and-caring-schools/whole-school-approach/everyone/whole-school-approach/?searchMode=3>(Accessed 19 June 2018.)
- Oxfam. 2015.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London, Oxfam. <https://www.oxfam.org.uk/education/resources/education-for-global-citizenship-a-guide-for-schools>(Accessed 19 June 2018.)
- UNESCO.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29/232993e.pdf> (Accessed 19 June 2018.)
- _____. 2016.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Education for People and Planet: Creating Sustainable Futures for All. Paris,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4/002457/245752e.pdf>. (Accessed 19 June 2018.)
- Van Driel, B., Darmody, M. and Kerzil, J. 2016. Edu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to foster tolerance, respect for diversity and civic responsibility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the EU, NESET II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세계시민교육 학교,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유네스코 국제교육국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1.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학교 현황 점검

세계시민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학습 역량을 함양해야 하는가에 대해 전학교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수준의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학교 수준의 논의를 통해 동의와 노력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시민교육은 단지 광범위한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데 그치게 될 뿐, 학습자들의 역량 개발과 경험적 학습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UNESCO, 2015, p. 46).

전학교적 접근을 통해 학교장, 교사, 학생, 교직원 등 전학교적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할 수 있고,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활동과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만이 지니는 특정 수요와 우선순위에 맞추어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전학교적 접근은 학교 정책과 실천에 내재되어야 합니다(MoE-Alberta, 2017).

세계시민교육의 전학교적 접근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학교 목표와 연계된 학교 차원의 세계시민교육 비전
- 도움이 필요한 집단 구성
- 세계시민성 평가 구성
- 학교 수준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 기존 학교 우선순위와 직원 개발·지원에 세계시민교육 통합
-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장려
-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하기 위한 순환적 계획 절차
- 교육과정, 교실, 교무실, 활동(예: 학교 협의회), 동아리, 체육관, 도서관, 식당 등 학교 내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의 활용 및 연결
- 세계시민교육을 기존 학교 우선순위 및 직원 개발 활동에 포함하기 위한 학교, 직원, 부모, 행정가, 학교 공동체의 리더십 및 참여

(King, 2015에서 재인용: Oxfam, 2007, p. 15)

비전 구축은 현재의 정책, 실행, 학교 문화를 점검하는 것과 긴밀히 연관됩니다.

1 세계시민교육 비전

국가 교육과정 및 역량에 근거하고, 유네스코가 개발한 세계시민교육 학습 목표를 참조하여, 전학교적 세계시민교육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는 내용 지식, 가치, 행동지향적 기술을 포함합니다.

2 정책 및 실행

포괄적인 정책은 세계시민교육의 실천과 직결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학교 정책, 참여도, 교수 역량, 직원 개발, 행정적 관여와 지원, 이용가능한 자원,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지역사회 파트너에 관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Oxfam, 2015; UNESCO, 2015). 이에 대한 검토 시 내용 분석이나 학교 구성원과의 면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학교 전체의 실천에 대한 일관성과 세계시민교육의 도입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토를 통해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학교 정신(비전, 가치, 철학)과 주제(국제,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실천과 참여 수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관점

교사를 세계시민교육에 참여시키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교사의 효과적인 교수 경험과 학생의 학습기회를 늘릴 수 있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의 현재 가치,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기술, 역량이 학생에게 친숙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과 보완이 필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설문조사는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와 학교 및 학교 관계자(교장, 교사, 행정직원)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교사 및 학교 구성원의 연수 및 전문성 개발

전학교적 접근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학교 구성원의 사전 지식과 역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은 교실과 학교 밖에서 전문성 개발과정, 교원연수, 세계시민의식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인턴십, 실습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은 세계시민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세계시민교육에 무엇을 포함하는지, 왜 학습환경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우선순위에 두는지에 관하여 학부모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학교의 현재 및 잠재적 노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학교가 학부모와 관계 맺는 방법은 다양하며, 기존 및 잠재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전학교적 접근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전학교적 접근을 위한 비전과 실천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학교가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수반됩니다.

-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
- 비판적·분석적 사고, 창의성, 개방성, 자신감 및 자존감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상호적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는 것
- 학교 자체를 학습 공동체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
- 인권, 다양성, 평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학교의 노력을 지역사회 내 실천과 연결하는 것
- 필요 자원을 배분(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ESD 전학교적 접근, 2018) 하는 것

2. 전략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학교 현황 점검을 위한 의견 수렴에 앞서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 관련 의견 및 교사, 학생, 기타 이해관계자 집단의 내러티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과 설문지/설문조사 초안을 작성해봅시다.

실행계획 세우기

1 이 계획에서 다루고자 하는 특정 집단은 누구인가?

학생, 교사, 행정가, 학부모, 학부모 협회 등

2 집단 내 모든 구성원과 면담하길 원하는가 혹은 대표만 면담하길 원하는가?

대표만 면담하길 원한다면 면담 참여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3 정보 수집에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서면·온라인 설문조사, 개인·초점집단 면담 등

4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5 정보 분석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양적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가?

개방 질문이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질적 데이터를 코딩하고 요약해야 하는가?

누가 수행할 것인가?

6 학교 구성원에게 결과를 어떻게 발표하고 배부할 것인가?

학교 구성원과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전체 보고서, 개요서, 인포그래픽 등

7 실천을 위해 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실천가능한 사항은 무엇인가?

실행을 위한 지도 집단이 있는가?

세계시민교육 학교, 무엇을 하면 되나요?

유네스코 국제교육국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1. 전학교적 실천 전략수립

세계시민교육의 전학교적 접근은 신중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이전에 실천되었던 것 중에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확장될 수 있거나 세계시민교육과 융합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학교적 접근은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크게 생각하되 작고 실천 가능한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Oxfam, 2015, p. 14).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전학교적 접근의 계획을 통해 공동의 비전과 점진적으로 수행될 장기간의 전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전학교적 접근을 장기적으로 실천할 때에 그 첫 단계로 아래의 활동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전체 학교 교육과정 계획
- 직원 연수 및 역량 강화
- 세계시민교육 단체와 파트너십 구축
- 학년 동안 지속되는 전체 학교 활동에 세계시민교육 포함
- 세계시민교육을 전학교적 상호문화 교육 및 통합 등 다른 우선순위 학교 의제와 연계
- 아동 친화적 학교 접근 적용(UNICEF, 2006)

전학교적 접근은 유기적입니다. 전학교적 접근은 향후 세계시민교육 정책 및 실천의 성찰과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전체 학교의 실천과 정책이 개선되고 변화할 때를 관찰, 검토, 평가,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기회와 주제가 학교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교수학습 과정 내 교사와 학생의 지속적인 참여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역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노력이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내 자기성찰적 평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매해 전년도 노력에 근거하여 다음 해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순환분석은 세계시민교육의 지속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2. 세계시민교육 파트너십 구축

교과목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은 전 지구적인 것(global)과 지역적인 것(local)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풀뿌리 노력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간 지속된다면 전 지구적인 대규모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이러한 종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학교와 학교 밖 여러 이해관계자 간 사이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파트너십을 처음부터 학교 세계시민교육 전략으로 포함시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이 전학교적으로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장기간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행동의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지역화된 학습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가족 및 기타 지역 구성원이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 이러한 지역사회 활동 노력은 지속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학교 행정가와 NGO 직원은 명확한 협력 관계 위에 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단체, NGO와의 협력

세계시민교육과 관련 주제를 다루고 전학교적 접근을 지원하는 국가적,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사회단체와 NGO가 많다. 예를 들어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의 '학교를 넘은 글로벌 학습(Global Learning Beyond School)' 프로그램은 글로벌, 문화 학습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조연과 협력을 제공한다. 그 단체는 교사 역량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글로벌 학습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 및 전략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학습을 우선시 합니다. 또한, 단체는 교육과정, 자료, 교사연수(글로벌교육센터)를 실시하며, 주로 언어 학습 및 문화 습득 과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단체는 세계시민교육 계획과 연계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교육자 및 행정가를 위한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Center for Global Education, 2017).

학교 구성원이 NGO와 지역단체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사회 영역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단체와의 연계는 좋은 시민성에 관한 실제적 예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행동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세계시민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2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교와 파트너가 협력할 수 있을까요? 연사 초청 프로그램, 인터넷 기반 결연 프로그램 등 학교와 파트너를 연결할 수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3 학교와 협력 집단에 모두 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4 세계시민교육 파트너와 연계할 수 있는 첫 단계를 토론하고 목록화합니다.
단체가입, 이메일, 전화, 대면 접촉

5 잠재적 파트너로부터 학교와 학교 구성원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저해하는 잠재적 장애물을 확인해봅니다. 어떻게 그러한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6 위의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학교와 학교 구성원에게 배포하여 외부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홍보하기 위한 전단이나 소책자 내용을 개발합니다.

참고문헌

· Center for Global Education. 2017. Global Learning Beyond School.
<https://asiasociety.org/global-learning-beyond-school> (Accessed 19 June 2018.)

· Oxfam. 2015.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London, Oxfam.
<https://www.oxfam.org.uk/education/resources/education-for-global-citizenship-a-guide-for-schools>(Accessed 19 June 2018.)

· UNICEF. 2006. Manual: Child Friendly Schools. New York, UNICEF.
https://www.unicef.org/publications/files/Child_Friendly_Schools_Manual_EN_040809.pdf(Accessed 19 June 2018.)

학교에 부는

변화의 바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메리칸인디언 부족의 격언처럼,
세계시민교육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능력,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변화를 만드는 교사

서화진 (경기 호원초등학교 교사)

story. 1

1. 세계시민교육, 이만큼 자라요!

궁극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은 행동하는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성'이라는 가치 지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즉각적인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 또한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는 어떻게 학생의 성장을 확인하고 촉진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의 변화, 어설피 보이지만 실천적 개입을 하려는 노력 속에서 표현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메시지를 섬세하게 읽어내고, 적절한 때에 알맞은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질문에서 나타나고, 교과 공부와 관련 없어 보이는 행동에서 드러나며,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동으로 새겨집니다. 그런 섬세하고 작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교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CASE

“‘공감’을 키워드로 역할 활동 수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곤 하는 인물을 종이에 적고 한 학생이 그 인물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본인은 그 역할을 모르고 나머지 학급 학생들만 확인하고 해당 인물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해주는 수업이었어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동생들을 돌보는 학생’이라는 인물이었는데, 반 학생들이 그 친구에게 ‘힘내’, ‘내가 후원금을 보내줄게’, ‘너무 힘들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해당 학생의 기분을 들어봤는데, ‘고마워요. 기운 낼게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학생의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기분도 같이 드는지 물어봤어요. 아이가 머뭇거리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해주면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다독였어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해도 되냐고 하면서 ‘기운 내라, 힘내라’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의견이었어요. 머리가 멍 하더라고요. 가상의 상황이었지만, 진심으로 해당 인물의 상황에 공감하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나치고 농칠 뻔 했던 학생의 섬세한 공감에 학급 친구들도 수공을 하고 다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저 역시도 세계시민교육을 한다고 하

면서 틀에 박힌 생각을 하며, 그런 상황에 처한 인물들을 비참하게 만든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저나 학생들이나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정답을 찾진 못했지만 당연한 것을 ‘정말 당연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 홍연진 (경기 도곡초등학교 교사)

세계시민교육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라는 위계적 관계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역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여정 속에서 학생들과 동반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식의 변화와 공감에 바탕을 두고 실천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은 그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성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CASE

“난민에 대한 수업에서 ‘난민을 수용하지만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학생이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그 학생이 ‘우리도 625전쟁으로 국민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 모여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자신들의 나라가 발전되어 자기나라에 살고 싶을 거예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전 충격을 받았어요. 난민을 수용하면 평생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유연한 사고로 전쟁난민을 우리의 역사와 연결 짓는 것이 너무 기특했죠. 교사인 제 생각을 바꿔게 한 것 같아요.” - 홍연진 (경기 도곡초등학교 교사)

2.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측면에서 보자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동아리 활동, 교과 수업 등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장’ 측면에서도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을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교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거나 전학교적으로 접근하는 등 다층적인 진행도 가능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이 담고 있는 가치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점, 실천되는 ‘장’이 학교 안팎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점, 가치지향적 교육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시민교육의 효과는 교사들의 개별적 실행보다 전학교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을 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가치지향적 교육들이 분절적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때로는 상충적으로 이해되고 있어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학교적 접근이 확산되기 어려운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실천들은 그만큼 소중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3가지 방식을 살펴봅니다. 먼저 전학교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각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서 동아리 프로젝트 운영사례를 살펴봅니다. 각 사례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각 학교 및 교수·학습자의 맥락에 맞게 변용하거나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전학교적 접근 사례¹

전학교적 접근에서는 학교 수업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분위기, 가정과 연계한 실천과 지역사회의 사안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아래 표에 제시된 사례는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에 두고, 전학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학교 운영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의 학교는 교육의 3주체(학생, 부모, 교사)가 모두 '이해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세계시민성 함양'이라는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문화를 도모하여 전 교원들이 협력적 운영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학교 안과 밖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실천한 사례입니다.

문화 만들기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 교원들의 학습공동체 기반 세계시민교육 연구 문화 형성
- 학부모 세계시민교육 연수와 학부모 동아리 지원을 통한 수업 협력 및 가정연계 활동

시스템 만들기 : TF조직과 전체 교사 간의 협력적 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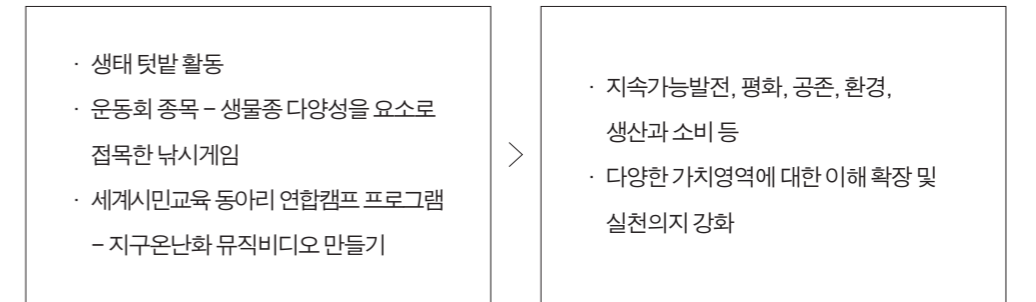
- 자료보급, 프로그램 기획 등의 TF 중심 플랫폼 구성
- 전체 교사들이 참여하는 전학교적 세계시민교육 활동 실천

교육 활동의 다각화 :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심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 전개

- 비교과 활동에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전개
(벼룩시장, 가족 체험활동, 박람회, 운동회, 동아리 연합캠프, 생태텃밭 등)
- 지역 이슈와 연계한 교과 내 세계시민교육 내용의 심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주제 중심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지역의 특정 이슈와 연계한 수업 실천)

¹ 서울안천초등학교(2016년 세계시민교육특별지원학교, 2017~2018년 세계시민교육 연구학교)의 전학교적 접근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함. 인터뷰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18년도 기본과제로 수행한 '미래사회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재개념화 연구(책임연구자: 조윤정)'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필자는 이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함.

전학교적 접근으로 진행되는 세계시민교육 활동은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진행되어 온 다양한 교육실천이 포괄적 성격을 띠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범주 안에서 융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시민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요소 중 한 가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실천되는 교육 활동 사례입니다.



2) 교과 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²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이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로우며, 평화롭고, 관용적인 동시에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지식, 역량, 가치와 태도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요약한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서 세계시민교육은 특정 내용과 방법으로 제한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전지구적 이슈를 사회·정치·문화·경제 및 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중요한 것처럼, 세계시민교육은 이슈를 바라보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관점에 그 강조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학교의 모든 교과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국어교과 수업이 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한 단원의 내용과 제재를 재구성하여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평등'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일상 경험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익숙한 만화 영상을 거리를 두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일상 속에 편재해 있는 것을 인식하고 놀라워합니다. 다음으로 '옷'에 대한 성별적인 구분이 문화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합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일상에 편재한 성별화된 차별적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변화 가능성을 읽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체험되는 성차별 경험을 다루는 상황극을 통해서 성권력의 차별적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² 서울안천초등학교 김혜연 교사의 공개수업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함. 본 사례에 대한 참어관찰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8년도 기본과제인 '미래사회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재개념화 연구(책임연구자: 조윤정)'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필자는 이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함.

교과 국어

단원명 이유를 들어 의견을 말해요

주제 성평등

대상 초등학교 3학년

수업흐름

- 1 만화영상(뿌로로 등) 속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성별 수 비교하기
- 2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글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 비교하기
- 3 국내외 역사적 사례 비교를 통해 '옷'에 대한 성별화된 관점의 변화 가능성 읽기
- 4 상황극(일상 속 성차별적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말하기

“여자가 없어요.”, “(만화를)남자들이 만든 거야”, “남녀 차별이에요.”

“성이 다르더라도 여자와 남자는 같을 수 있어요.”

“차별하지 마세요. 남녀 목소리는 상관없어요.”

“여자라고, 남자라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세계시민교육³

한 나라와 지역의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역시 머지않은 미래에 전 지구적 차원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입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요즘, 세계시민교육을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한 활동’으로만 이해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정의와 평등, 평화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모든 장소가 바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현장임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현장을 발견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과 일상의 사소해 보이는 경험을 재발견하는 ‘열린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하게 느껴져 질문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경험들에 수많은 배제와 차별과 억압이 내재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질서’라고 생각해서 쉽게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가 학생들과 잠시 멈추어 열린 시각으로 일상을 돌아켜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마주하는 생활 경험들이 조금 다르고 어색하게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다름과 어색함을 통해 생활경험에 질문을 던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면, 당연하게 느껴지던 일상이 사실은 다양한 ‘사건’이 중첩된 역사의 결과임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은 비로소 일상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 걸기’를 해야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갈 수 있을지를 단계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학생들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인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Learning to live together)’ 과정인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에 질문을 던지고, 그 일상에 축적된 경험을 의미있는 ‘사건’으로 읽어내며,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해가는 일련의 과정들은 학생들의 탐구지지에 의해서 주도되는 프로젝트 기반 방법을 통해 보다 잘 실천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수업은 학교라는 공간의 경계를 넘어 사고되고 실천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 외에서도 다양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학생들이 던지는 일상의 질문은 학교라는 경계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활동이 추동되므로 교사는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생들은 학교 밖 사회에 대해 질문하고 개입하는 학습활동에 익숙하지 않기에 탐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벽’에 부딪혀 의지를 잃거나 종종 교사에게 의존하게 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의 보조적 역할은 오히려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생들이 현실사회 개입에 필요한 기관방문, 인터뷰, 의견제안 등의 과정에서 막달뜨리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시민교육과 같이 강한 가치지향성을 가지는 교육일수록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감해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므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활동은 세계시민교육의 유의미한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교육 활동은 다양한 교과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내 동아리 활동과 같이 학습주제와 활동방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과나 비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아리 활동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실천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우리 동네엔 왜 ‘방방장’이 없을까?’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놀이터’를 둘러싼 두 아파트의 갈등 회복의 주제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활동에서, 도시화, 지역개발, 환경, 참여와 같은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 탐색해가며 지역의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자각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³ ‘초록문의 진실: 학생 프로젝트’는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지구나눔연구소의 ‘2016년 지구나눔연구소 프로젝트’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함. 필자는 객원연구원으로서 호원초등학교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멘토링 함.

“초록문의 진실” : 5학년 동아리 학생 프로젝트

프로젝트 전개

- 1 ‘왜 그럴까?’ : 학교와 마을에서의 경험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질문하기**
→ “우리동네엔 왜 방방장(트램펄린)이 없을까?”
- 2 관련된 질문 브레인스토밍하기 : 관련 경험 이야기를 통해 핵심 이슈(문제) 발견하기**
→ “왜 우리는 놀 곳이 없을까?”, “우리 아파트 놀이터는 왜 그럴까?”,
“왜 초록문 너머의 다른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면 안 될까?”
- 3 이슈(문제)를 둘러싼 경험 정리하기**
→ 우리 아파트 놀이터 문제, 죄인의식, 경고문과 경비아저씨에 대한 분노감, 초록문 너머 아파트 친구에 대한 배신감, 문제를 회피하는 어른들의 무력감 등
- 4 경험에 기반, 다양한 가설과 연구질문 세우기**
 - 1) ‘경비아저씨의 인성이 문제이다’
연구질문 경비아저씨는 왜 ‘검문’을 하는가?
 - 2) ‘초록문 너머 아파트 거주 친구들이 나쁘다’
연구질문 초록문 너머 아파트 친구들은 다른 아파트 친구들의 놀이터 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3) ‘어른들처럼 경고문을 따라야한다’
연구질문 다른 아파트 놀이터 이용에 대한 생각은?
- 5 가설 확인을 위한 다양한 조사활동**
→ 경비아저씨 인터뷰, 학교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 6 조사 결과를 통한 이슈(문제) 확인 파악**
→ 경비아저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초록문 너머 아파트 친구들은 오히려 초록문 안 친구들의 놀이터 이용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
→ 초록문 너머 놀이터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접근방식 문제
- 7 문제 이해를 위한 조사활동**
→ 초록문 너머 놀이터 이용 빈도,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실태 조사
(학생들 설문조사 및 놀이터 현장 쓰레기 조사 및 이용 학생 인터뷰)
→ 초록문 너머 놀이터의 문제점 확인(쓰레기통 부재, 분리수거장 접근성의 어려움 문제 파악)
→ 초록문 너머 주민들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분석
- 8 쓰레기 문제와 주민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 학교 학생들 대상 초록문 너머 놀이터의 깨끗한 사용을 위한 캠페인 활동
→ 아파트 주민 대상 쓰레기통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캠페인 활동
→ ‘쓰레기통 설치 및 관리방식, 분리수거장 접근성에 대한 제안’ 사항 주민자치회 안건 의제화 요구

9 초록문을 경계로 한 긴장과 갈등이 사라짐

10 프로젝트 학생들의 성장

- “놀이터와 같은 놀이시설이 우리 어린이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므로 이용하는 방법과 시설 만드는 과정 등을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꼭 물어보고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나의 세계시민교육, 조금씩 성장합니다!

1) 잘 모르고 내디딘 한 걸음이 바로 세계시민을 만나는 첫걸음

학교에서 교사가 세계시민교육을 접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에 의해서 ‘갑자기’ 만나게 되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동료 교사의 교육 활동을 ‘어깨너머’로 익히거나 ‘감동을 받아’ 적극적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을 접한 대부분의 교사는 ‘잘 모르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이름으로 ‘국제교류 교육 활동’ 업무를 담당하며, ‘편지나 각 나라 물품을 주고받는 즐거운 활동’ 또는 ‘영어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도전’으로만 생각했던 처음을 ‘잘 몰랐다’고 회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을 시작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해 정도, 경험의 양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시작’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을 열고, 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개념을 만나 결국 세계시민교육의 ‘거대한 강’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이 없어 보이거나 사소해 보이는 작은 활동에서 시작한 교육실천이 문화다양성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인권교육, 성교육을 만나게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가치교육들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자신의 교육 활동 경험세계를 열어둔다면, 이미 교사의 실천은 변혁적 교육이라는 세계시민교육의 거대한 강에 놓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CASE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에티오피아에서 2년 여간 있었어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에게 제 경험을 전해주고 싶어 제가 찍은 사진과 함께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6학년 수학 시간에 ‘물의 들이’를 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3~4개월 정도 단수를 체험했던 경험도 이야기 했고요. 그러다 점점 제 감정과 경험을 좀 더 알맞은 교육프레임을 통해 객관화, 구조화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에 다가가게 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정말 또 다른 공부와 경험이었어요. 단수를 체험했던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로 풀어만 가는 게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했어요. 가령, 세계 물의 날에 에티오피아 사례를 활용해 물 절약의 중요

성 수업을 했는데요. 물 절약 프로젝트에 아이들과 직접 참여하는 것만 아니라 이집트 나일강에서 비롯된 수자원과 관련하여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처한 상황과 국제분쟁을 함께 짚어주었어요.”

- 조규희 (안산원곡초등학교 교사)

2) 세계시민교육의 깊이를 더하는 다음 걸음⁴

세계시민교육은 정의, 평화, 포용, 지속가능성 등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지역적이면서도 전 지구적인 이슈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세계시민교육의 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이슈들을 수업 현장에서 다룰 때 종종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이슈를 바라보는 교사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담감이기도 하고, 이슈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학습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피로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과 피로는 세계시민교육 실천 시도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고민이 되는 순간에는 세계시민교육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이슈에 대해서 '정의, 평화, 포용, 지속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생각의 깊이를 확장해 가도록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역·전 지구적 이슈들이 갖고 있는 복잡한 의제들에 대해 교사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을 수는 없으며, 이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필수 역량도 아닐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고민의 지점들을 학생들과 함께 '정의, 평화, 포용,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인식론적 확장을 이루어 내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CASE

“답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다져진 기반이 없다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자료를 찾거나 뭔가를 연구해보려고 해도 선제의 결과물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가이드라인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웠어요. ‘내가 지금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작년에는 인권, 평화 주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위안부’ 이슈를 이야기 하다 보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기 마련인데, 아이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아, 위안부 할머니들은 너무 불쌍하고 일본은 나쁜 나라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일본은 우리 이웃나라고 지구촌 나라 중 하나인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답이 없으니까 물어볼 데도 없고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잘못 잡았어요.” - 김혜연 (서울안천초등학교 교사)

⁴ 인터뷰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8년도 기본과제인 '미래사회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재개념화 연구(책임연구자:조윤정)'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필자는 이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함.

4. 내 주변에서부터, 동료 교사들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교사들이라면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경험들, 그리고 이미 수업에서 다루어 온 익숙한 주제에 대해 다룬다는 점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곳'이라는 일상성에서 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성찰적 시선과 세계의 이슈를 지역의 맥락에서 사고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세계'와 '지역'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인식을 토대로 세계시민교육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시민교육에 담길 수 있는 내용과 가치가 포괄적이고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해와 공감에 기반하여 궁극적으로 실천력을 제고한다는 다층적 목표를 기하는 특성 때문에, 목표 달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은 서로 상보적으로 성장하는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가는 성장은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을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의 철학이 강조하는 연대성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CASE

“선생님들과 세계시민교육 연구회를 꾸리고 수업의 방향성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참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2인 1팀으로 SDGs의 한 주제를 골라 자료를 같이 찾고, 전체 모임에서 협의를 했어요. 초·중등 선생님들이 함께 의논하니까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지더라고요.” - 양철진 (경기 전곡중학교 교사)

“저희 반에 엄마가 일본인인 남학생이 한일 역사문제 앞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여서 다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듣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인권, 문화다양성, 환경, 지속가능발전, 평화 등의 주제가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는데,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고 감동했구요. 그동안 둔감했던 제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관심영역이 다르지만 함께 연결해서 배워갈 수 있다고 느꼈어요.”

- 정현미 (용인신촌초등학교 교사)

참고문헌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2017). 세계시민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가이드.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2018). 다시 생각하는 교육.
- 조윤정 외(2018). 미래사회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재개념화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중학교에서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

김정민 (충남 해미중학교 국어 교사)

앞장서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고민을 나누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나름의 원칙을 세워 세계시민교육에 임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원칙은 ‘고민은 반드시 함께 나누어야 한다.’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협력을 통해 해결되는 모습을 경험한 후,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고민을 학생들, 동료 교사, 멘토, 교장 선생님,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자.’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의 변혁적 교수법은 정해진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교실 상황마다 다른 이슈를 가지며, 비슷하더라도 이를 풀어내는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를 성급히 도출하지 말자.’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과정이 중요한 만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을 천천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세운 첫 번째 원칙을 상기하며 동료 교사들과 함께 중국어, 역사, 국어, 영어 수업에서 세계시민교육 주제통합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공개수업을 가졌습니다.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교사 학습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에 교과를 뛰어넘는 안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조직 안에서 외롭게 고민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용기를 내어 동료 교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문제가 단순해지고 나온 방향이 보였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며 동료 교사들과 나눈 협업의 즐거움,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유학기,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관지어 지속적으로 세계시민교육 실천방법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

이건희 (부산 개성고등학교 영어 교사)

정규 수업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주로 ‘프로젝트 활동’으로 녹여내었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과후수업에서는 저녁 특강 시간을 활용하여 좀 더 실험적이고 이상적인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과 후 수업에서는 ‘앞으로(路) 세계시민’반을 개설하여 ‘군함도’라고 불리우는 ‘일본 하시마 섬의 진실 알리기’를 프로젝트 주제로 잡았습니다. 불합리한 사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주변 친구와 선생님, 나아가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하시마 섬의 진실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구상했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활동별로 모둠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관광 전단지(국/영문판) 1000부 인쇄 및 배포, 군함도 배지 제작 등을 실현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장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학생회 산하 ‘지모개(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가꾸는 개성인의 모임)’라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딱딱한 학생회 활동에서 벗어나 학교를 청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학교 차원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휴업일에 나와 봄꽃을 학교 정원에 심는 ‘게릴라 가드닝’을 비롯하여 각 학급에 ‘공기정화식물 배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에 ‘풍향띠 부착’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 전체에 세계시민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나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학생들이 한두 명씩 세계시민 대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거나 동료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기쁩니다. 미국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이면 시작이고, 같이 있으면 진전이며, 함께 협력하는 것은 성공이다.”

세계시민교육, 학교의 미래를 그리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7)에서 발췌 및 요약

학교 변화의 디자이너, 교장

최일호 (강원 신림초등학교 교장)

story. 2

다양성을 위해 가르치고 배우라. 협력하고 전문적 역량을 개발하라.
가족 및 학부모와의 관계를 구축하라. 창의적 학습과 시민의식 함양에 기술을 활용하라.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라.

— 마이클 풀란, 2017

학교는 경영책임자(CEO)인 교장의 영향력에 따라 교육 효과가 달라지므로 교장은 학교를 지혜롭게 이끌어 가기 위해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를 성공적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학생의 수준과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교사들과 함께 의사소통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매년 학교 경영의 설계도(교육계획서)를 만들어 학교를 운영합니다.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세계시민의 자질은 지구촌에 대한 소속감과 인류를 향한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하며,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가 주창해 온 ‘더불어 사는 교육(Learning to Live Together)’, 그리고 ‘모두를 존중하는 교육(Teaching Respect for All)’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사회에서 다른 문화권과 공존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주도적으로 살아 가야 할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세계시민교육’과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며, 이 점이 바로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교장 한 사람만의 의지로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교장은 교감, 교사,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지역사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목표 달성에 집중하며, 목적한 교육의 효과가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에서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변화(세계시민교육의 접목)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넛지(nudge:마중물)*로서 학교장의 역할과 리더십은 다음의 4가지 단계(Aim-Learn-Practice-Share; ALPS)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넛지’란 사전적으로 팔꿈치로 살짝 찌르다는 뜻이며 어떤 일을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행동을 변화하도록 하는 유연한 개입을 말하며, 2009년 출간된 리처드 탈러와 캐스션스타인의 행동경제학 책 “넛지”에서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널리 알려진 개념임(다음백과).

A.L.P.S

1 AIM

왜 세계시민교육인가

교장-교직원들과 공동의 목표 공유하기
협업, 소통의 시간 등

2 LEARN

배움을 돕는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시간 활용
세계시민의식 함양 학교 여건 조성

3 PRACTICE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교수학습 활동 전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배움의 실천

4 SHARE

나눔-상생(相生)하는 세상

친구와 이웃과 나누는 세계시민교육
평가 및 환류하기

1. AIM 왜 세계시민교육인가? : 공동의 목표 공유하기

세상은 우리가 다 파악하기 힘들 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그 연결은 인터넷에 의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촘촘해졌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나아가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된다.

— 오준호,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일을 마치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매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한비아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은 이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이제 ‘지구촌’이 아니라 ‘지구집(global house)’이라고 불러볼까요? 6층(6대륙)으로 된 집에 75억 명이 함께 살고 있죠. 지구집은 유리로 되어있어서 뒷집, 아랫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현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지구온난화, 환경파괴, 빈곤, 갈등과 분쟁 등) 대부분은 인접 지역(국가)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가히 우리는 전 지구가 협력하여 해법을 찾아야 하는 ‘지구촌 가족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인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교과와 범교과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와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 ▲다양성 존중 ▲평화, 인권 등에 대한 폭넓은 사고 ▲지구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 LEARN 배움을 돕는 학교 :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BE TRUTHFUL **BE GRATEFUL**
BE POSITIVE **BE HUMBLE**

- 뉴질랜드 오클랜드, Botany Downs secondary college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의 Botany Downs 학교의 인성교육 목표는 '진실(Truthful), 긍정(Positive), 감사(Grateful), 겸손(Humble)'입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교육자들 모두 공동체 의식, 인성교육 바탕 위에서 함양되는 시민의식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더불어 사는 사람(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요소와도 연결됩니다. 교장은 '교사가 어떤 관점과 태도로 세계시민교육의 요소와 가치를 받아들이며 교육에 임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학기 시작 전, 학교에서는 전년도 교육과정을 반성하며 올해에 새롭게 운영할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교직원이 함께 의지를 모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핵심 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적 역량)을 "어떻게 각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녹여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또한, 교사들이 주체가 되는 '자발적 교원학습공동체'의 지혜를 활용하여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사를 독려하는 것도 학교 관리자의 중요한 리더십의 일부일 것입니다.

모든 교과를 학교장 혼자 설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원학습공동체와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토론이 살아있는 수업, 꿈 설계를 코칭 하는 학교)이 적용되도록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학기 학교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교육부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모델안(2016년 발표)'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
방법	체험활동 활용 다양한 수업(교과)에 걸쳐 통합 실행	도덕·사회교과 및 창의 체험활동 시간 활용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활용	계기교육 · 교교: 교양교육 · 대학/성인: 워크숍 포럼
예시	세계시민 여권만들기, 이웃에게 편지쓰기	도덕 시간 역할놀이, 토론, 자료탐구	모의 유네스코 총회	대학생 토론, 워크숍, 강좌 이수 등

1)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로 토론을 가르치는 학교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는 21세기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Skills), 협업(Collaboration)'을 제시하였으며,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남과 다른 자신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 앞에서 튀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자신감이 없어서, 남들이 나의 질문 내용을 홍보고 무시하는 것이 두려워서' 등등의 이유로 질문이 사라진 교실에 대해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의 저자인 김현섭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질문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질문에 친화적이지 않은 학교 풍토와 입시 때문에 교실에서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

- 김현섭, 2015

학교장의 따뜻한 리더십으로 '학생에게 질문을 이끌어 내는 교사들의 수업 방법 개선 노력'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감 있게 질문 및 토론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용기 있는 학생(시민)들이 생겨나는 교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수평적 조직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

세계시민교육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조직의 민주적 분위기(조직 풍토)가 아닐까요? 학교 구성원(학교관리자-교직원-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 간 소통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는 학교에서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 문화를 통해 학교 자체가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실천하고 내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는 세계시민교육 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 공동체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초(교장 정성조)는 수평적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회의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회의는 다음의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건 사전 공지와 배경 설명하기
- 회의 목표와 결과 명확히 하기
- 회의 꼭 참석하고 시간 지키기
- 소집단 토론 활성화로 적극 참여하기
- 결과 공유와 실행 여부 알려주기

쉽지는 않지만, 수평적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장은 학생자치회와 교직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교 현안 해결과 교육 활동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대표),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조화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학교장의 리더십과 더불어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마음, 시간, 공간(학교 및 지역사회 모두가 교육의 장)을 열고" 소통하는 수평적 학교 문화가 정착된다면, 교직원 간의 교육 활동 협력이 활성화되며, 우리 학생들은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3) 학생의 '꿈 설계'를 코칭(coaching)하는 학교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꿈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며, 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일 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며, 꿈 설계도를 잘 그릴수록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김현유, 2012)'고 합니다.

교사들은 '마음으로 꿈을 계획하고, 행동으로는 꿈을 이루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는 끊임없는 독서와 다양한 체험활동, 수업, 토론(말하기, 글쓰기)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꿈과 비전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적성과 꿈을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교장이 먼저 나서서 멘토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정밀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도록 코칭하고, 교사들을 격려하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부드러운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3. PRACTICE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 교육실천 내용

교육부에서는 2015년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세계시민교육을 수업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시·도교육청에서 추천 받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교사'는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수업, 학생 동아리 운영, 교사 연수 진행,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중심적인' 교육을 강조합니다(조대훈, 2017). 특히, 학교 현장의 세계시민교육 일반화를 위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는 매년 선도교사들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동자료 등을 수록한 '실천사례집'의 제작·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세계시민교육의 수준 향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에게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만큼의 역할과 몫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이들의 실천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첫걸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도교사 선생님들의 주요 실천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실천사례집

2016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소속학교들의 실천사례 주요 내용

1	강원 평원초	문화 배경이 다른 아이들 모두 편견 없이 친하게 지내기
2	광주동산초	생명이 자라는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한 환경 생태 체험하기
3	인천송원초	공동의 문제에 연대의식을 갖고 함께 해결하는 마음 갖기
4	부산강서고	잡지 '지구별 공동체(환경, 다문화, 공존 등의 내용)' 발간
5	세종 한솔중	아나바다 장터, 옥상 텃밭,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 운영 등
6	울산 다운중	타인 존중, 경쟁 대신 협력, 배척 대신 배려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실시
7	경북 김천여고	글로벌 이슈 관련 외국인 초청,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8	수원동신초	고장의 문화유산 소개하기(화성행궁 홍보영상 제작) 등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에서는 '과정의 배움'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위의 제시 자료들보다 학습의 구성원(교사-학생)이 함께 활동 주제와 내용을 찾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교사 혼자만의 세계시민교육이 아닌 교원학습공동체에서 함께' 협의하고
- '과목(교과)별 특성에 맞춰 조화롭게 재구성된 프로젝트'를 실천하며
- '교원 중심의 학습문화(학교 조직 풍토) 지원'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반경 내에는 다양하게 활동하는 NGO단체, (지역)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향교, 마을교육공동체, 환경단체 등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합니다. 학교장의 관심(열정)과 영향력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학교교육과 연계'시킨다면 '지역의 자원(資源)은 모두 교육 요소(要素)가 될 수 있습니다.

4. SHARE 나눔으로 상생(相生)하는 세상 만들기 : 친구와 나누는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은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성공하려면,
첫째, 교장, 교직원, 지역사회가 소통해야 하고,
둘째, 수업과 평가에 대해 교사에게 재량권이 있어야 하며,
셋째, 학교-지역사회 간의 시간과 공간이 열려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자는 취지의 몽실학교(꿈을 실현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를 비전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지향점인 '더불어 사는 사람'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련 교수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길잡이 해주는 몽실학교에서 청소년들의 배움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배움의 결과는 다시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상생에 기여하는 선순환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김용련, 2018)"라고 했습니다.

학생 개인마다 희망과 꿈을 발견하며,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구성 지원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코칭해주는 것이 학교장의 역할이며,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학교장의 코칭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도 당당히 소통하는 능력을 겸비하도록 준비한다면, 학생들의 무한한 창조적 사고의 깊이가 우리나라, 아시아,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품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의 격언처럼, 세계시민교육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능력,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지역적 한계, 문화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용기를 품게 해야 합니다. 이런 교육 바탕 위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자신만의 소중한 꿈의 '정교한' 설계도를 만들고, 한국 땅보다 넓은 '마음의 영토'를 넓히는 '행복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 마이클 폴란(2017). 학교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이찬승 외 1인 옮김. 21세기교육연구소.
- 김현유(2012). 꿈을 설계하는 힘. 도서출판 위즈덤하우스.
- 김현섭(2015).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 한국협동학습센터.
- 조대훈(2017).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새로운 도전과 과제. 서울교육. 2017-225호(겨울호).
- 김용련(2018). 몽실학교 실태 분석 및 발전 방향. 『국회 몽실 정책 토론회(2018.2.23.)』. 민주연구원.

학교장은 세계시민교육 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

이춘희(서울안천초등학교 교장)

Q. 학교장으로서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독려하시나요?

A. 교사들은 국제이해교육학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수, 국제 워크숍, 국제교류, 한국국제협력단(KOICA), APEC 국제교육협력원, 월드비전 등 각종 기관이나 NGO, 서울초중등세계시민교육연구회, 서울다문화교육연구회 등 관련 연구회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의 권고는 다른 교사들의 자발성을 비교적 쉽게 이끌어 내기도 하지요.

이렇듯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과 만나게 된 경로와 배경이 매우 다양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깊이와 넓이를 가진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딱히 어떤 형태로 규정짓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아무것이나 '이것도 세계시민교육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어야 하고 교원들은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영주체인 관리자 연수, 교사 연수가 중요한 이유이죠.

본교의 경우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사의 이해와 인식을 돕기 위하여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 직무연수(20시간), 교원 현장연수, 교원학습공동체 연수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학교장으로서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입니다. 어떤 관리자(교장, 교감)가 부임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경영 방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관리자의 이해나 관심의 정도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요.

관리자의 마인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교사들이 없다면 실행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이 되어 이끌어갈 구성원이 필요한데 한두 사람이 학교 전체의 세계시민교육관련 업무와 교육을 맡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요. 본교의 경우 핵심이 되는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특별지원학교와 유네스코학교를 운영하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교직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전체회의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분석과 행사 등 학년 교사들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학년에서 지원을 하지만, 계획서 작성이나 행사를 위한 회의나 준비 등 많은 부분을 TF팀에서 맡아서 합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이 들지만, 마음에 맞는 동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고 평가와 환류를 통해 새로운 실천을 해나가다 보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은 학교 급 별로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교육 공동체의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교육에 관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교육의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교육부와 시·교육청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정책들을 통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Q. 지역공동체(학부모, 지역단체 등)와 협동하여 전학교적 접근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A. 세계시민교육은 인지적 영역, 사회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에 기반을 두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나 교육이 가정에서도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학부모의 이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부모 연수가 꼭 필요합니다. 본교에서는 관련 학부모 연수로 '세계시민교육의 이해와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학교장 특강을 실시하였고 '회복적 정의를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특강을 2회 실시했습니다. 학부모 연수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데 본교의 경우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일 업무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코너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게시판, 가정통신, 학교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세계 시민교육 관련 안내나 자료, 작품 등을 게시하거나 답재,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유엔기념일 프로젝트 공모전, 토론대회 참가, 외부기관과 연계한 행사 참여, 가족

체험활동, 벼룩시장, 학교 축제나 운동회와 연계, 각종 모금 활동 등 다양한 학교 행사를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음식의 날을 운영하여 학교 급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 체험 및 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고, '스포츠로 세계 시민되기'라는 주제로 가을 대운동회와 연계한 난민 이해 수업 및 세계시민교육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Q. 세계시민교육을 전학교적으로 실천함에 있어 학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단위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학교가 처한 상황과 인적 물적 환경에 맞게 설계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에 있어 학교장의 역할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장, 교감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이를 교육과정 속에 녹여서 실시해야 하는 수많은 교육중의 하나로 취급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학년, 학급, 동아리 단위의 소규모로 힘겹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의 단위학교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천천히 그러나 지속할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필요성을 확실하게 느껴 그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서울교육 웹진 Vol.225. 겨울호 "단위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방안"에서 발췌 및 인터뷰 형식으로 편집

다시 생각하는 학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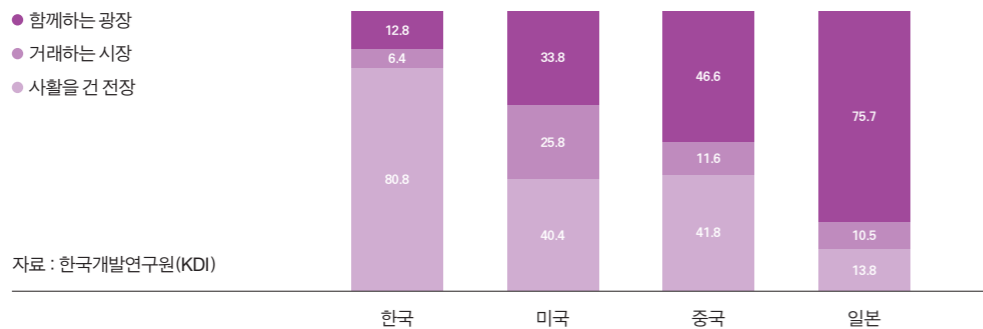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story. 3

1. 우리에게 학교란?

21세기 한국 교육을 살펴보려 하니 최근 한 국제비교연구 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2018. 08. 03)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흥미로운 연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저신뢰 각자도생 사회의 치유를 위한 교육의 방향' 보고서(KDI, 2018)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국 대학생을 국가별로 1000명씩 '함께하는 광장', '거래하는 시장', '사활을 건 전장'이란 3가지 이미지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 어울리는 것을 고르게 하는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고교교육에 대한 한·미·중·일 대학생들의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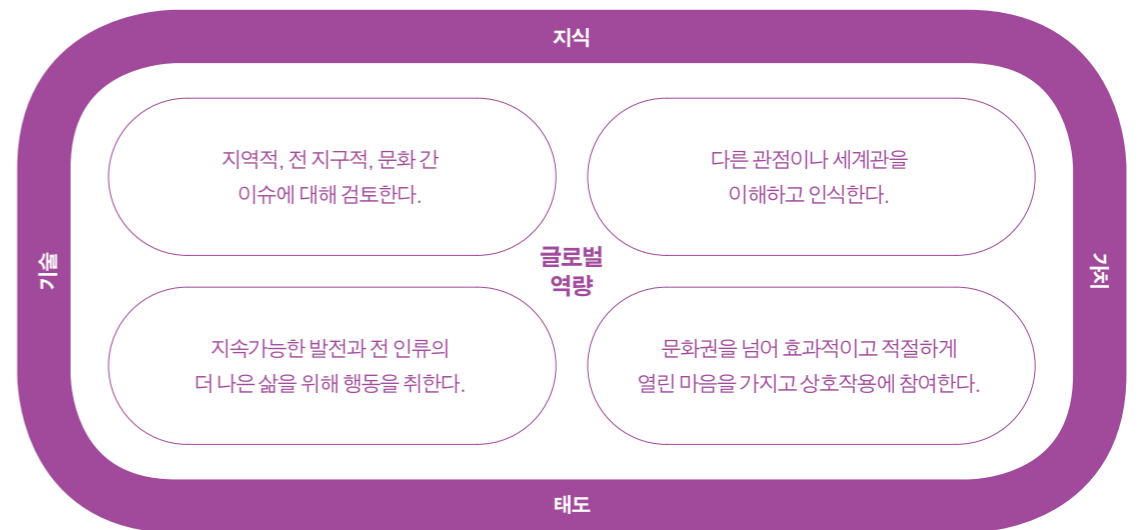
위 도표는 한국 대학생들의 인식이 나머지 세 나라 학생들과 얼마나 다른지 잘 보여줍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응답자 80.8%가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과 같다고 선택한 것에 비해 '함께하는 광장'의 모습이라고 답한 학생은 12.8%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 미국, 일본 대학생 중 자국의 고교 이미지로 '사활을 건 전장'을 택한 비율은 각각 41.8%, 40.4%, 13.8%입니다.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사회적 신뢰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4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부정적 현상에 대한 해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 위주 교육 환경을 바꾸려면 수업 방식을 강의 위주(수직적)에서 토론과 프로젝트 해결 중심(수평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토론을 통해 한 개인의 생각보다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료의 소중함에 대해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업을 통해 좀 더 강력한 개선안을 모색한다면 봉사를 통한 학습(service learning)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이 속한 더 큰 시스템(예: 지역사회, 국가, 세계)에 기여했을 때 보람을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봉사는 더 큰 봉사로 이어집니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인성교육 외에 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시민교육,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세계시민을 육성하려면 학교 교육은 오늘날의 입시중심 경쟁교육에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질 높은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이란 용어가 용어만 존재하고 내용 면에서 걸도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2. 학교 내 세계시민교육의 발현

세계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학교 현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또 하나의 부담을 추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은 부담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교육 과정 속에 물 흐르듯 스며들게 하는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결 고리는 역량교육 목표 6가지와 모두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공동체 역량(지역, 국가, 세계 등 공동체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올해부터 OECD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가 측정할 예정인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평가와 연계하는 것도 세계시민교육의 관심을 높이고 실천 동력을 마련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ISA 글로벌 역량 영역



출처: <http://www.oecd.org/pisa/pisa-2018-global-competence.htm>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아이들 마음속에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가 세계시민교육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학교가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안에서 세계시민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학교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매일 보며 가르침을 얻는 교사로부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교사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주입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자는 교사가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교사의 인성으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
(Learners learn much more from who teachers are than from what teachers teach!)”

세계적 교육가 에릭젠슨(Eric Jensen)이 한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는 물론, 학교장, 학부모를 거울삼아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계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발현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등 학교 전체에 세계시민교육의 가치가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3.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방안

그렇다면 학교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까요? 우선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학교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은 '교육이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과 역량, 가치와 태도를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근사한 목적이며 이런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에 대해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시민교육 실행을 위한 전반적 지침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기획·번역한 '세계시민교육 : 학습주제 및 학습목표'(2015)라는 출판물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와 활동 방식을 발굴해야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추진은 논리적으로 2가지 접근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교과 및 비교과 수업에 통합하여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교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상황에서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의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시민성이 의미있게 발현될 수 있을까요? 세계시민교육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학생의 삶과 연결고리를 찾아 강력한 학습동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자신들의 삶과 관련이 깊은 것이어야 합니다. 빈곤, 부의 편중, 불평등, 사회정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환경 문제 등의 주제도 이와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주제 선정이나 활동 설계를 할 때도 학생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가능하다면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첫째,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을 소셜미디어에서 찾아 연구보고서 작성하기
- 둘째,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후 공유하기
- 셋째, 지역사회에서 사회를 바꾼 사람들 인터뷰하기
- 넷째, 이웃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다큐멘터리 제작하기
- 다섯째, 남들이 모르는 이웃의 선행을 찾아내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등

위의 예시처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좀 더 진취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씩 참여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타국의 학생들과 공동으로 추진된다면 국제이해와 세계시민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런 시도가 교실 내에서 실패하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 사회인이 되었을 때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타인과 협력으로 이를 해결했던 경험이 하나의 역량이 되어 세상에 이롭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의 시점을 잘 잡는 것도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와 매우 관련이 큼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운 주제를 가장 뜨거운 시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습의 최적 순간(teachable moments)'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상륙한 예멘 난민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의미와 영향, 한국 증시의 과도한 하락,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결 방식, 올해처럼 유난히 더웠던 여름 날씨와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의 주제를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클 때 수업의 소재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너무 거창하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교육'처럼 직관적으로 그 가치가 느껴지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쉬운 용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첫걸음은 학생들 각자의 변화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내가 속한 지구촌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이 되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나와 함께 변화하는 사람의 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요란하고 화려한 구호 아래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려기 보다는 차분히 내실 있게 한국의 여건에 맞춰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육의 힘으로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해 봅니다.

참고문헌

- 이찬승(2016).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질문 10'
http://21erick.org/bbs/board.php?bo_table=11_5&wr_id=100363&page=14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2014).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난민캠프에서 싹 틔운 세계시민교육의 전학교적 실천

우간다 난민캠프 학교 이야기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연구개발실

우간다 북부 키리안동고(Kiryandongo) 지역에 설치된 난민캠프에 자리 잡은 아놀드 초등학교는 전교생 약 4,000명 중에 90% 이상이 이웃국가인 남수단이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내전, 종족 분쟁을 피해 내려온 난민 아이들입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로, 난민 대부분은 18세 미만 아동입니다(UNHCR, 2018).

분쟁을 피해 온 이곳에서 학생들은 남수단에서 갈등 관계에 놓여있던 종족인 다른 학생들과 다시 만나 한 공간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과 반목이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다툼이 잦았고 폭력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시작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학교에 도입하면서 이제는 긍정적인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학생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전보다 친구들과 다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학교의 Godfrey Lok'isyepo 교장 선생님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래나 시를 활용해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구성하고,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문구를 학교 곳곳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자주 볼 수 있게 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분위기와 환경에서부터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했고 그 시도는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학부모의 참여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가 마을 안에 울타리 없이 자리하여 학부모이자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교육 수업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기에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그로인해 학교 행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난민캠프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학교 전체 환경이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꾸며져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그 동기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먹고 입고 자는 것, 그리고 읽고 쓸 줄 아는 기초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사신을 넘어왔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강조하는 상생, 배려, 민주적 의사소통과 같은 가치 교육을 병행하지 않으면 이들은 또다시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들이 온전한 세계시민으로 자라서 돌아가 자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실함 속에서 싹을 틔운 세계시민교육이 이곳에서 꽃을 활짝 피울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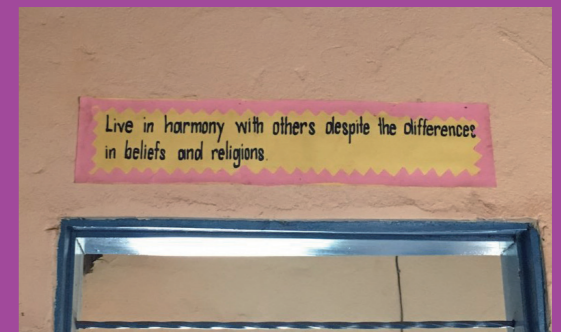
우간다 키리안동고 지역 난민 캠프에 위치한 아놀드 초등학교 전경



아놀드 초등학교 수업 모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자.



종교와 신념의 차이를 넘어 조화롭게 더불어 살자.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 자료

세계시민교육 모여라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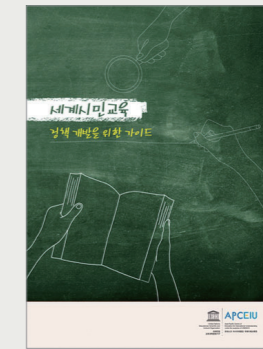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그동안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자료를 개발해왔습니다.
다음의 자료들이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자양분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출판물의 경우,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홈페이지(<http://apceiu.org/ko/>)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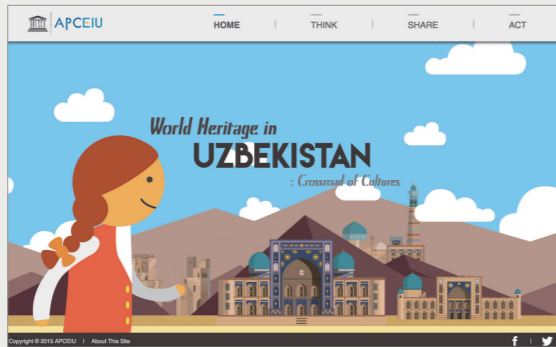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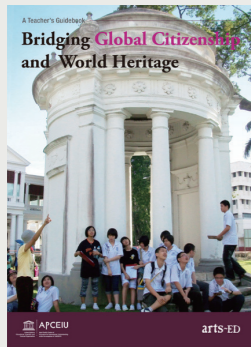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가이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실천사례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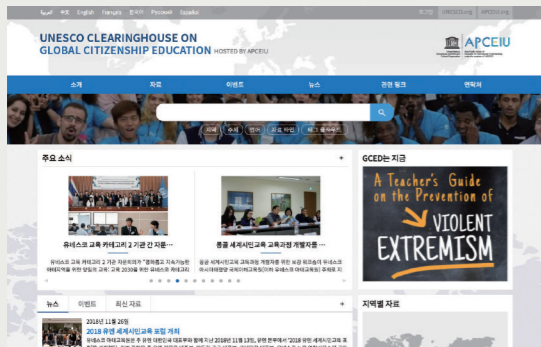
세계유산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자료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캠퍼스
(www.gcedonlinecampus.org)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www.gcedclearinghouse.org)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PCEIU)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을 통해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싱크탱크로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정책 연구를 실시하며,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유네스코 네트워크 및 회원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교육 2030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담긴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요 선도 기관으로서 앞장서 활동하고 있습니다.